

광주여대 안산, 양궁 월드컵 단체전 '금메달 명중'

프랑스 파리 4차 대회
결승서 대만 6-2 꺾고 우승
광주은행 최미선 개인전 동
한국 금 4·은 1·동 1개 획득



안산(광주여대·왼쪽부터)과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공원에서 열린 2023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6-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양궁연맹 홈페이지>

'도쿄올림픽 3관왕 스타' 안산(광주여대)이 2023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단체전에서 금과 은을 획득했다.

안산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임시현(한국체대)과 호흡을 맞추며 대만을 6-2(55-56 58-57 57-51 58-5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총점 합계 1위(2034점)로 토너먼트에 나선 여자대표팀은 16강서 덴마크(6-0 승), 8강서 스페인(6-0 승), 4강서 멕시코(6-0)를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여자대표팀은 결승에서 대만에게 첫 세트를 내줬지만 이후 내리 세 세트를 따내며 이날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부진을 만회했다. 또 월드컵 2차와 3차 대회에 이어 다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최미선(광주은행)은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은 준결승서 케이시 카우프홀드(미국)와 접전 끝에 4-6(28-28 28-29 29-29 29-27 28-30)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나 하이리간(중

국)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7-3(28-29 28-27 28-28 29-27 29-27)으로 이겼다.

김우진(청주시청)·김재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대만을 6-0(59-53 59-53 57-56)으로 제압하고 3회 연속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우석을 6-0

(29-28 30-29 29-28)으로 꺾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우석과 임시현은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5-3(39-39 39-36 38-39 39-3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리커브 양궁대표팀은 금 4개, 은 1개, 동 1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체고 체조 문건영 '3관왕'

문체부장관기 안마·철봉·평행봉 1위... 김승아는 여고부 도마 '금'

광주체고 체조부 문건영(2년)이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체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문건영은 지난 15-20일 영광군 스포티움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고등부에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문건영은 기계체조 안마 결승에서 13.600점을 획득,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평행봉과 철봉에서도 결승에서 각각 13.833점과 13.633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링 결승에서는 12.967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49회 대회에서 금 4개(안마·도마·평행봉·개인종합)와 동 1개(링)를 차지한 문건영은 이번 대회에선 6개 종목 중 안마, 링, 평행봉, 철봉 등 4개 종목만 출전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주니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다친 발목 부상 여파로 마루와 도마 종목은 출전하지 않았다.

문건영은 주니어 아시아선수권에서 개인종합 동메달과 마루 은메달을 획득한 뒤 도마 결승 경기 도중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달여 동안 치료와 재활훈련을 병행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문건영은 이번 대회에서 발목 부상 여파를 고려해 4개 종목만 출전했고 모두 입상하면서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다관왕 기대감을 높였다.

문건영은 "발목 상태가 거의 회복 단계로 왔지만 아직 통증이 남아 있어서 이번 대회에선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발목 부상 회복과 재활

문화체육관광부 KB국민은행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체조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광주체고 문건영. <광주체고 체조부 제공>

을 꾸준히 실시해 올해 전국체전에서 4관왕 이상을 목표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체고 김승아(2년)는 여고부 도마 종목 결승에서 11.70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감독은 "부상 여파에도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준 문건영과 최선을 다해준 김승아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컨디션 유지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9일 송원대 청솔관 3층에서 열린 제1회 송원대학교 총장배 전국주짓수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수태 송원대 총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제1회 송원대 총장배 전국주짓수대회 성료... 전국 211명 참가

제1회 송원대학교 총장배 전국주짓수대회가 지난 19일 송원대 청솔관 3층에서 전국 211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송원주짓수팀을 창단한 송원대 스포츠지도학과를 전국의 주짓수 매카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남·여 중등부, 남·여 고등부, 남·여 성인부(비기너/어드밴스), 남·여 유색벨트(블루/퍼플/브

라운/블랙벨트) 등 총 120개 이벤트로 진행됐다. 엠솔루트 경기로 진행된 각 부문 수상자는 ▲김도윤(엠솔루트 남자 중등부) ▲강현재(엠솔루트 여자 중등부) ▲김정민(엠솔루트 남자 고등부 블루) ▲김민지(엠솔루트 여자 고등부) ▲배성준(엠솔루트 남자 고등부 화이트) ▲이지혜(엠솔루트 여자 성인부 화이트) ▲김영웅(엠솔루트 남자 성인부) ▲이상의(엠솔루트 남자 성인부 퍼플벨

트) ▲장태영(엠솔루트 남자 성인부 블루벨트) ▲문영현(엠솔루트 여자 성인부 블루벨트) 등이 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송원대에서 전국 주짓수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다"며 "참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남자배구 아시아선수권 2연승... 12강 진출

파키스탄에 3-1 역전승

한국 남자배구가 22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패조의 2연승으로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국제배구연맹 세

레랭킹 28위)은 21일 이란 우르미아의 알가디르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파키스탄(50위)을 세트 점수 3-1(26-28 25-20 32-30 25-22)로 따돌렸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연파한 한국은 F조 1

위를 차지해 23일 오후 3시 45분 C조 2위 인도네시아와 6강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파키스탄의 신장과 조직력에 고전하던 한국은 1세트 26-28 듀스에서 나경복(국방부)의 서브 범실로 세트 포인트를 주고 나서 서브 에이스를 얻어 맞아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세트 이후 허수봉(현대캐피탈)과 정지석(대한항공) 등이 활약하며 역전승을 이뤘다. /연합뉴스

순천FC U15 축구팀, 청룡기 우승



2023 청룡기 중등 유스컵에서 창단 3년만에 우승의 영예를 안은 순천FC U15가 시상식을 마친 뒤 이영수 감독을 행개라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FC 유소년팀(U15)이 청룡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순천FC U15팀이 경남 고성에서 최근 열린 '2023 청룡기 중등 유스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순천FC U15팀은 이번대회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전북완주FC에 0대 2로 패했지만 두번째 경기에서 울산효정중을 2대 0으로 누른 데서 부산강서FC마저 5대 0 대승을 거뒀다.

조별리그 2승 1패 조 2위로 본선무대에 진출한 순천FC U15팀은 8강전에서 경남고성FC, 4강전에서 경남보물섬남해FC를 각각 승부차기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이번 대회 마지막 대결에 나선 순천FC U

15는 조별예선에서 패배를 안겼던 전북완주FC를 상대로 전반전을 0대 0으로 마쳤다.

후반들어 공격의 고삐를 당긴 순천FC U15팀은 1분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박형은이 기록한 헤더골을 끝까지 지켜 1대 0으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순천FC U15팀은 페어플레이상과 최건민이 최우수선수상, 이우영이 공격상, 나송민이 수비상, 이영수 감독이 지도자상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순천FC U15팀의 전국대회 우승은 창단 3년만에 처음인 것 같다"며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오픈하이머, 강변의 무코리타
- 3관 오픈하이머, 보호자
- 4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5관 달짝지근해: 7510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밀수
- 7관 싸네카를 밀수, 엘리멘탈, 보호자
- 8관 싸네카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메가론 2, 비공식작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